

# 공유재산 관리·처분 자율성 확대

###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추진... 16일까지 입법예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

함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취득 1건당 20억원 또는 6,000㎡ 이상, 처분 1건당 10억원 또는 5,00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처분 취득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에서 대장가격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행정절차

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공사 기본 비중에 텔레비전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또는 전기레인지) 등만 포함돼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을 상

향 조정해 학교 및 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서 "관사에 거주하는 교직원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의가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도교육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 새만금 잼버리 사전행사 우석대서 성황리에 개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전행사인 'B-스카우트의 밤'이 우석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남천현 총장과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폴란드·아이슬란드·대만·에스토니아·파리파이 등 5개국 65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을 환영했다.

이날 행사는 우석대 태권도시범단 공연과 문화포럼 '나니레'의 퓨전국악 공연, 참가국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31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전 참가자들에게 전북의 전통문화 체험과 공연을 통한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편 세계 150여 개국 4만3,00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1일부터 12일간 부안군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된다.

남천현 총장은 "멋진 친구들과 함께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꿈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국립군산대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교육 진행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지석근 교수)이 최근 지역 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창업교육인 '2023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교육 1회차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하나금융그룹 고용노동부 언더독스 주식회사가 공동 주관해 개최했고,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창업가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를 목표로 군산대학교에서 6주간 총 8회차로 운영된다.

하나금융그룹이 주관하는 하나 파워는 헬린지 프로그램의 일환인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사업은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청년 인재를 창업가로 육성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만 18~34세 미취업 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청년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군산대는 8회차로 이루어진 이번 창업교육을 제외하고도 △창업캠프 △창업이디어 경진대회 △선진지 견학 △네트워킹 △멘토링 등을 추진해 지역의 창업지원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국립군산대학교 지석근 창업지원단장은 "군산시 또한 작년부터 소셜벤처 지역에 포함돼 지방 쇠퇴의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이라며, "이번 창업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 정주환경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군산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희망한다. 청년 여러분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움직이고, 그 뒤를 서포트하는 것이 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권순익·김판곤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와 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학교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내실화

### 도교육청,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와 협약 마약 노출 학생 사후관리 지원 등 적극 협력기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달 31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와 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신태용 전북지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 마약류 및 유해약물 접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정책 추진 협력 △학생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진문강사 양성과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 △학교 마약 예방교육 및 마약 노출 학생 사후관리 지원 △기타 학생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예방 관리 지원에 관한 실

무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신태용 전북지부장은 "학생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마약류에 접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이 마약류에 접근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활성화 및 전문 연수 등 교육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 디지털 사회격차 해소 평생학습 문화 확산

### 전북대 평생교육원-전주시 찾아가는 생활 디지털 교육 내달부터 12월까지 운영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양병호)은 전주시민의 디지털 사회격차 해소와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전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속화 된 디지털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 스마트폰 앱과 키오스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지자체와 대학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찾아가는 생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9월부터 12월까지 총 50회 운영된다.



지난 2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전북도교육청-전주시 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양병호 원장은 "국가 거점급대대학으로서 교육적 책무를 수행하고 지역의 평생 학습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전북대와 전주시가 상호 지원을 융합해 시민들을 위해 시대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에 더욱 힘

쓰자"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https://e.jonju.ac.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5208, 063-288-002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 '작가의 꿈 여기서 이루세요'

### 전북대 중앙도서관, 23일부터 '책쓰기 프로젝트' 운영 글로벌 대학 역할 수행... 인문학적 소양 함양 기회 제공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도서관장 이준영)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 책쓰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앙도서관은 대학과 지역 상생에 기여하고, 지역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역민들이 6주간 책을 쓰고 작

가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책쓰기 프로젝트 '도서관, 지역과 함께 쓰다'는 오는 23일부터 6주 과정으로 참가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산문문에 등단 작가의 글쓰기

지도 및 1:1 피드백으로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참가자들에게는 책고 도서를 제공해 완성된 원고는 책으로 출간해 도서관 장서로 등록할 방침이다.

신청은 전북대 도서관 홈페이지(<https://dl.jnu.ac.kr/>)를 통해 8~11일까지 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30명이다.

이준영 도서관장은 "이번 책쓰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독서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문화의 거점을 조성하고 대학 인력의 벽을 허물며 질적 측면에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은 지난달 28일 도민가족 100명과 함께 문화공연 및 천체 관측 행사 가족과 함께 별을 만나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 '가족과 함께 별을 만나다'

### 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천체 관측행사 운영 25일 장애 아동 가족 대상 천체 관측활동

전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원장 김정옥)은 지난달 28일 도민가족 100명과 함께 문화공연 및 천체 관측 행사 '가족과 함께 별을 만나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된 이번 행사는 총 2부로 진행, 1부는 2층 사인스홀에서 익산시립합창단이 합창 공연을 들려줬다.

이어 2부에서는 전시체험관으로 이동해 천체 관측 및 별자리스코프 만들기, 천체투영관 영상 관람 등 다양한 체험들이 진행됐다.

한편 과학교육원은 오는 25일에는 장애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문 화공연과 함께 여름철 천체 관측 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장애 아동 가족은 과학교육원 누리집(<https://office.jodukr/jse>)-천문 관측 예약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정옥 원장은 "앞으로도 전북 도민들이 천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가족이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특수교육지도사 워크숍 개최

### 도교육청, 80명 대상 오늘부터 이틀간 완주 상관리조트서 위급 상황 대처·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일 이틀간 완주 상관리조트에서 2023 특수교육지도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지도사 8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워크숍은 현장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특수교육지도사는 총 430명으로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등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인육구지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문제행동 관리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급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현장중심의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와 실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교육을 위해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으로 구성됐다.

또한 특수교육지도사의 교육지원 활동 중 누적된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산나는 데크리 에이션 공감콘서트, 편백나무 숲 탐방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지원인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내·외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적응과 교육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특수교육지원인력의 학교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달 31일 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생 사후관리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1분 PR 스피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스피치 통해 면접 능력 '쑥쑥'

### 전주기전대, 졸업생 대상 면접 준비 프로그램 진행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달 31일 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생 사후관리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1분 PR 스피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통해 18명이 참여, 스피치 능력 향상을 목표로 면접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전주기전대학 졸업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아나운서와 함께 스피치 진단 및 처방, 발성 및 발음 교정, 기초 스피치 구성 실습 및 Q&A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교육과 졸업생은 "취업의 최종 관문인 면접에 대한 스피치 스킬 및 발표 구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좋았다"면서 "자신에게 맞는 발성 및 발음을 찾아 자신감이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덕현 센터장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대학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